

지역간 연계 · 협력사업들을 통한 상생발전

김 선

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
I. 지역간 연계 · 협력의 확대 필요성

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광역화전략 즉, “사업구역의
강화전략”이며 광역화전략의 성공적 운영기반은 다름 아닌 지역간 연계
광역경제권,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 계획권역은 계획, 목표, 수준은 서로
운영 매카니즘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.
협력이란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는데 다
개별적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작용에 기초한 협상을 통해 자원 권한 및
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란
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”으로 규정함
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상호간, 광역-기초 자치단체 간, 기초자치단체
개발권, 광역경제권, 기초생활권 등 권역간 연계 · 협력도 포함하는
필요가 있다.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고령화 · 저성장 시대에는 자치단체
추진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급
단체가 협력사업 사업(시책)의 유보하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

을 통하여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방지하여
분산투자 로 인한 거래비용(transaction cost)을 절감하고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
결합생산을 통하여 투입 대비 추가이익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. 또한 자치단체
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추진역량을 중대시
(criticalthreshold)를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(economies of scale)를 실현해야

1.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

구 분	2010년	2011년	2012년	광특계정
				지역계정

주민들의 생활패턴은 광역화된 지가 오래이며, 지역 그리고 국가간 경제 및 교류활동의 범위도 행정구역을 벗어난지 오래입니다. 5+2 광역경제권은 현 정부의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